목포 음식점 하루 3~4곳 문 닫는다

경기불황에 외식 줄고 식재료 채산성 악화

상반기 745개 음식점 휴·폐업, 업종 변경

경기 불황으로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목포시내 음식점들도 문을 닫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목포시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일반음식점은 4천206개소로 지난해 12월(4천245개소)에 비해 39곳이 줄어 들었다.

목포시 관계자는 "비교적 손쉽게 창업할 수 있어 매년 증가하던 음식점이 올들어 줄어든 것은 그만큼 경기침체가 심각하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속내를 들여다 보면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이 기간 동안 745개소의 음식점이 업종을 변경하거나 아예 문을 닫았다. 하루에 3곳 이상의 식당이 장사가 안돼 주인이 바뀌면서 새롭게 문을 여는 휴폐업과 신규 등록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목포시내 음식점들이 이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시민들이 경기불황으로 외식을 줄이고 있는데다 국제유가와 곡물가격 폭등으로 원가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채산성이 악화된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가스비가 30% 올랐고 국제 밀가격 상승으로 시판 밀가루 값은 10~13%로 뛰었다.

외식업계의 한 관계자는 "치밀한 시장조사 등 사전준비 없이 음식점을 개업했다가 투자비를 날리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영산호 폐어망·부유물 수거 한국농촌공사 영산강사업단(단장 조인현)이 지난달 29일 목포 환경운동연합, 나주·함평·무안지역 어민회와 공동으로 영산호에 불법으로 설치된 각종 폐어망과 부유 쓰레기 수거를 위해 대대적인 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무안경찰 도움…25년만에 모녀 극적 상봉

경찰의 도움으로 모녀가 25년만에 극적으로 상봉했다.

광주에 거주하는 노모(27)양은 어렸을때 헤어진 어머니를 찾지 못해 안타까워 하던 중 무안경찰서(서장 민갑룡)의 도움으로 어머니와 헤어진 지 25년 만에 다시 만나는 기쁨을 누렸다.

2살 때부터 어머니와 헤어져 삼촌 집에서 성장한 노양은 평소에도 어머니를 찾으려고 수소문해오다 최근 무안경찰서의 도움으로 오산시에 살고 있는 어머니와 상봉의 기쁨을 누렸다.

무안경찰서 관계자는 "경찰의 '헤어진 가족찾기 제도'를 이용하면 보다 쉽게 가족을 만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무안=대성수기자 dss@

신안 도초중·비금중에 영어 원어민 강사 배치

신안군 섬지역 학교에 영어 원어민 강사가 처음으로 배치됐다.

신안군은 캐나다 현지 유학원과 전남도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지난달 캐나다 출신 영어 원어민강사를 도초중과 비금중에 배치했다.

원어민 강사는 신안군 도초도와 비금도에 자리한 3개 초등학교와 2개 중·고등학교 530여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주 1회씩 영어 강의를 하게 된다.

그동안 신안군은 섬지역 학교에 영어 원어민 강사를 배치하고자 했으나 지원자가 없어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신안군은 앞으로 중학교가 있는 모든 섬 지역에 영어 원어민강사를 배치할 계획이다./신안=조완남기자 wncho@

새전남 라이온스클럽 신안 봉사활동

국제 라이온스클럽 355-B2지구 새전남 라이온스클럽(회장 권운식)이 지난달 31일 1박2일 일정으로 신안군 도초면에서 하계봉사 및 자연보호캠페인 봉사활동을 펼쳤다.〈사진〉

회원 40여명이 참가한 이번 봉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미용 봉사와 노인 청력 테스트와 함께 시목 해수욕장에서 해상쓰레기 줍는 등 자연보호캠페인도 함께 실시했다.

회원들은 또 기금을 모아 보청기 5대, 선풍기 33대, 부항기 15대 등을 마을에 기증했다.

권운식 회장은 "앞으로 정기적으로 섬지역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목포 신항 포트 세일즈합니다"

전남도, 4일 수도권 화주 등 초청 항만투어

서남권 물류거점·대중국 무역항 육성 박차

전남도가 목포신항 활성화를 위한 포트 세일즈에 나선다.

전남도는 4일 목포시, 목포신항㈜과 함께 목포신항의 화물유치와 신규 항로 개설을 위해 수도권 화주, 선사, 포워더(복합운송업체) 관계자 300여명을 초청해 항만투어를 벌인다.

이번 항만투어는 목포신항을 서남권 물류거점이자 대 중국 무역항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J프로젝트(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무안기업도시 등 지역 개발계획과 목포신항 발전비전, 인센티브 제공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또 국내외 선·화주 및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목포신항의 인지도를 높이고 목포신항으로의 신규항로 개설을 유도하는 등 목포신항 조기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방침이다.

전남도는 앞으로 목포시, 목포지방해양항만청, 목포신항만㈜이 참여하는 공동마케팅 기획단을 운영해 중국 일본, 필리핀 등 해외 포트세일즈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 9월 열리는 제 11차 I-NAP(International Network of Affiliated Port) 국제 자매항만회의를 목포신항에서 개최해 자매항만을 중심으로 포트세일즈를 확대하기로 했다. /채희종기자 chae@

/ 새 얼 굴 /

"형식 탈피, 독서교육 강화하겠다"

장 재 익 진도 교육장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정신으로 형식을 탈피하고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재익(54) 신임 진도교육장은 "실천 중심의 예절교육과 학생들의 기본 생활습관 형성을 비롯해 조화로운 인성 발달을 위한 독서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진도 조도 출신인 장 교육장은 목포 교육대학과 조선대 교육대학원(수학교육 전공)을 졸업했으며 전남도교육청 장학사, 함평 골프고 교장, 전남도교육청 교육정보화과 지원담당 장학관 등을 지냈다.

가족으로는 부인 이순지씨와 사이에 1남 2녀가 있다. 취미는 독서와 골프.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목포시 작년 살림규모 7천179억

市 재정공시…지방채무는 895억

목포시의 지난해 살림규모는 7천179억원이며 지방채무는 895억원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2007년도 살림규모는 7천179억원으로 일반회계 5천378억원,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1천801억원"이라고 2일 밝혔다.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수입은 2천807억원, 의존 재원(교부세, 보조금 등)은 2천571억원이며 지방채무는 895억원이다.

지방 채무는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채무 등 공기업과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채무 475억원, 시민이 부담하는 순수한 채무 420억원으로 시민 1인당 채무 부담액은 17만원이다.

재정 규모가 비슷한 타 자치단체와 살림살이를 비교해 보면 살림규모는 14억원이 많고 자체수입은 1천126억원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공시는 지방예산의 집행상황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제도로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 분야별 결과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 시보 등을 통해 공시하고 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이동 보훈복지 민원 만족도 평가

목포 보훈지청 '전국 1위'

목포 보훈지청(지청장 송영조)이 국가보훈처에서 한국 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올해 상반기 이동 보훈복지 민원 만족도 평가에서 전국 1위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에서 목포 보훈지청은 재가복지 및 이동보훈팀을 이용한 민원인의 만족도가 98.8점으로 전국 평균 보다 6.2점 높아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목포 보훈지청은 보훈 도우미 11명을 채용해 치매, 중풍 등으로 고생하는 생활이 어려운 고령 보훈가족 113명을 대상으로 매주 1~2회씩 말벗, 청소, 이동보조 등 가사, 간병 서비스 등 재가 복지를 펼쳐 호응을 얻고 있다.

또 영광, 진도, 영암, 함평군 등 원거리 4개 지역 보훈회관에 매주 1회 찾아가 민원을 처리해 주는 이동보훈팀도 운영하고 있다. /목포=이상휴기자 lsh@

국토부 '해양보호구역 전국대회'

무안군 '최우수상' 영예

무안군이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지난달 28·29일 이틀간 경기도 강화군에서 열린 '제 1회 해양보호구역 전국대회'에서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대회는 해양보호구역 관련 기관 및 자치단체가 참여해 기관~지자체간 또는 지자체~주민간 정보교류와 효율적인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대한 인식 증진 및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개최됐다.

무안군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내년 7월 개관 예정인 '무안갯벌 방문객 센터'의 성공적인 개관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을 수립, 무안갯벌의 보전과 지역발전 연계방안의 기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무안갯벌은 지난 2001년 전국 최초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으며, 2008년에는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바 있다. /무안=대성수기자 dss@